



## 미 증시, 엘런 재무장관의 발언 등으로 강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21일(화) 미국 증시는 3월 FOMC 대기심리에도, 엘런 재무장관의 은행 유동성 위기 추가 대응 방안 조치 보도에 위험선호심리 회복하며 상승 (다우 +0.98%, S&P500 +1.3%, 나스닥 +1.5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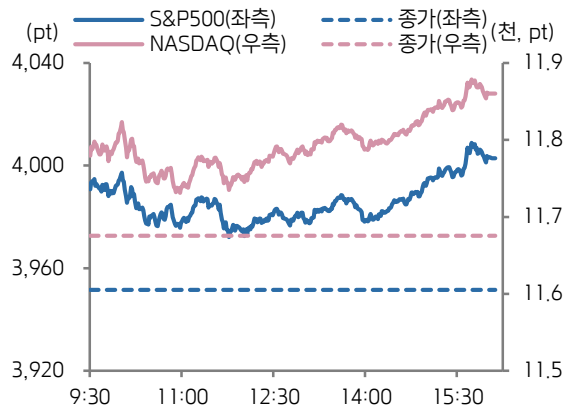
재닛 엘런 재무장관이 필요 시 소형 은행에 추가 예금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밝힘. “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는 특정 은행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더 넓은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”, “소규모 은행이 예금인출 사태를 겪어 이것이 전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”고 언급.

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뱅크에 미 당국이 이례적으로 FDIC 를 통해 전액예금보장 조치를 취한데 이어 앞으로 소형 은행들에서뱅크런이 일어나면 사실상 동일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공식화. 필요한 경우 의회 허락없이 재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외환안정기금(Exchange Stabilization Fund)을 활용.

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(CHIPS Act)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, 중국에서의 신규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포함. 미국 보조금을 받을 시 10 만 달러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 년간 중국 생산능력을 5%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,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%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됨.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규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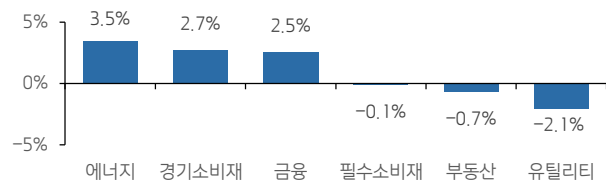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에너지(+3.5%), 경기소비재(+2.7%), 금융(+2.5%) 업종은 강세를 보인 가운데, 유틸리티(-2.1%), 부동산(-0.7%), 필수소비재(-0.1%) 업종은 약세. 시스템리스크 불안으로 지난주 낙폭을 확대했던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감산 조치를 6 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소식에 힘입어 상승, 에너지 섹터 강세에 기여. 테슬라(+7.8%)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Baa3 로 상향했다는 보도에 강세. 엔비디아(+1.15%)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3 에서 생성형 AI 를 강조하며 양자 컴퓨팅 플랫폼 등 신상품 및 AT&T의 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제휴를 발표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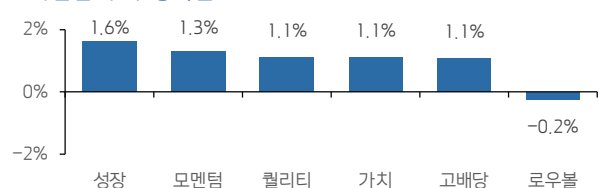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388.35	+0.38%	USD/KRW	1,311.07	+0.01%
코스피 200	310.36	+0.28%	달러 지수	103.22	-0.06%
코스닥	802.53	+0.04%	EUR/USD	1.08	+0.01%
코스닥 150	1,174.77	-0.1%	USD/CNH	6.88	-0.02%
S&P500	4,002.87	+1.3%	USD/JPY	132.47	-0.03%
NASDAQ	11,860.11	+1.58%	채권시장		
다우	32,560.60	+0.98%	국고채 3년	3.292	+5.7bp
VIX	21.38	-11.47%	국고채 10년	3.305	+1.5bp
러셀 2000	1,777.74	+1.88%	미국 국채 2년	4.166	+19bp
필라. 반도체	3,116.89	+0.07%	미국 국채 10년	3.609	+12.5bp
다우 운송	13,993.97	+1.67%	미국 국채 30년	3.732	+6.7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181.60	+1.51%	WTI	69.67	+2.73%
MSCI 전세계 지수	627.63	+1.23%	브렌트유	75.07	+1.73%
MSCI DM 지수	2,711.84	+1.25%	금	1958.3	-2.07%
MSCI EM 지수	952.45	+1%	은	22.32	-0.93%
MSCI 한국 ETF	59.13	+0.54%	구리	401.85	+1.0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54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67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01.1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옐런 재무장관의 시장 친화적 발언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. 3 월 FOMC 관망심리로 인한 지수 상단 크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 3. 테슬라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3 월 이후 SVB 발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제 2 의 리먼사태, 시스템리스크 등 위기설들이 불거지면서 시장 심리를 수시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상황. 그러나 주가의 진폭만 커졌을 뿐 주요국 증시들의 지수 하단은 견조한 상태라는 점을 미루어보아, SVB 가 촉발한 중소형 은행권 불안은 기존 증시 경로를 훼손시키지 않는 악재의 성격이 짙음.

더 나아가 이미 작년부턴 연준이 역대급 고강도 긴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추후 부작용을 염려했으며, 이는 연준, 미 재무부 등 정책 당국자들도 마찬가지고 였고, 그에 따른 대응 플랜을 사전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임. 전일 옐런 재무 장관도 현재 은행권 위기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, 일시적으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프라이즈성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도 마찬가지.

또 다른 뱅크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 작업을 통해 예금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, 지난 주 이후 당국에서 내놓은 일련의 사태 진화 조치(SVB 예금자 보호 확대, 중앙은행 달러 스왑 협정 강화, 잠재적인 지급보장 대상 확대 추진 등)들은 이를 상당부분 충족시켰던 것으로 판단. 이번 SVB 발 위기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에도 관련 불안 심리가 증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, 그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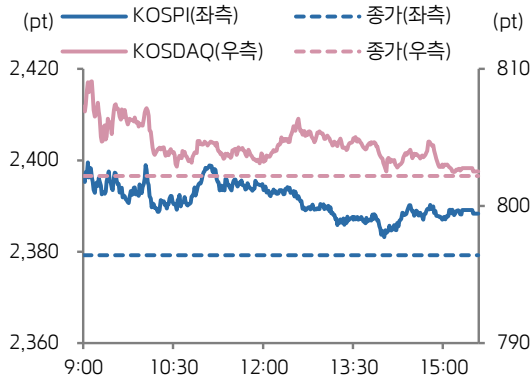
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3 월 FOMC 결과가 될 것. 현재 은행권 위기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다는 점을 감안 시 동결(or 극단적으로 인하)할 시에는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(ex: 사태가 연준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등), 25bp 인상이라는 기존 당국의 관점은 유효.

금리 결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관전 포인트는 1) 12 월 FOMC 점도표 상 5.25%를 제시한 최종금리를 어느정도 상향할지, 2) 지난주 ECB 처럼 은행권 금융 불안 진정보다 물가 안정에 더 주력할지, 3) 최근 고용 시장 호조, SVB 발 사태 등을 2 월 FOMC 이후 출현한 재료들을 경제 및 물가 전망에 얼마나 반영할지 등이 될 것. 또한 이번 FOMC 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, 실제 FOMC 결과를 놓고 시장참여자들간 해석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FOMC 이후 1~2 거래일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3 월 FOMC 경계심리에도 크레딧스위스발 불안 진정, 중국 외자판호 발급 소식 등에 힘입어 개별 업종 장세가 전개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(코스피 +0.38%, 코스닥 +0.0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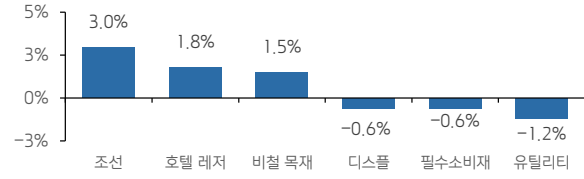
금일에도 FOMC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와 관망심리가 이어지겠으나, 옐런 재무장관의 시장 달래기 발언, 원/달러 환율 급락(역외 -11 원)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(주가 충격의 강도는 미국 처럼 크지 않았으나), 퍼스트리퍼블릭(+29.5%), 커스토머뱅크(+10.4%), 자이언스뱅크(+7.0%) 등 미국 중소형은행 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은 국내 전반적인 은행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전망. 신용등급 상향으로 테슬라(+7.8%)가 급등했으며, 포드(+4.8%), GM(+4.4%) 등 여타 자동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자동차 및 전기차 관련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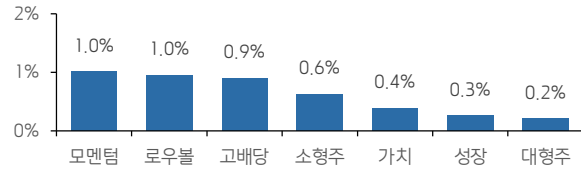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승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